

볼리비아, 산체스 데 로사다 대통령 사임

□ 산체스 데 로사다 대통령 사임

- 10월 17일 곧살로 산체스 데 로사다 볼리비아 대통령이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지 한 달, 계엄령 발효 6일만에 전격 사임함.
- 대통령의 사임으로 이어진 이번 볼리비아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칠레를 통해 미국과 멕시코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겠다는 정부의 천연가스 수출계획임.
 - o 산체스 데 로사다 대통령은 취임 직후 남미 지역 매장량 2위의 천연가스를 미국 등에 수출하기 위해 영국과 스페인계 다국적 석유 컨소시엄과 수출계약 체결을 추진해 왔음.
 - o 그러나 노동자들은 천연가스 수출 혜택(연간 약 15억 달러)이 정부와 외국기업에만 돌아가고, 1879년 전쟁으로 영토를 빼앗긴 칠레를 통해 가스를 수출하는 것은 국가적 수치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9월 15일 반대 시위를 시작함.
- 천연가스 수출계획 이외에도 경기침체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와 높은 실업률, 전체 인구의 60%가 하루 2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등 벼랑 끝에 몰린 볼리비아의 경제현실과 IMF 처방에 따른 정부의 경제개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임.
 - o 지난 2월에도 경제 실정과 IMF 요구에 따른 긴축정책, 소득세 인상조치 등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로 32명이 사망한 바 있음.

- 특히, 광산업계의 백만장자 기업인 출신으로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친미파인 산체스 데 로사다 대통령이 미국의 마약 근절 정책에 동조해 일방적으로 코카인 재배를 금지함에 따라 삶의 터전을 잃은 농민들의 분노가 이번 사태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함.
- 노동자와 농민 시위대에 교사와 학생 등이 합류하면서 시위가 날로 과격해지자 정부가 12일 계엄령을 발동했고, 시위대와 계엄군의 충돌로 80여명이 사망하는 등 사태가 더욱 악화되자, 산체스 데 로사다 대통령이 사임 의사를 밝히고 미국으로 망명함.

□ 향후 전망

- 헌법에 따라 언론인 겸 역사학자 출신의 카를로스 메사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였으나, 신임 메사 대통령은 무소속으로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임.
- 조만간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며, 유력한 대선 후보로는 지난 해 대선에서 산체스 데 로사다에 패한 뒤 이번 퇴진 운동을 주도한 원주민 출신 사회주의운동당(MAS)의 에보 모랄레스와 연정에서 탈퇴한 신공화세력당(NFR)의 만프레드 레예스 등임.
- 한편, 개혁성향의 대통령 하야로 향후 볼리비아의 국영기업 민영화 일정, 코카인 재배 금지 정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됨.

책임연구원 김영석(☎3779-6653)
E-mail : claudio@koreaexim.go.kr